

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, 공정위와 금융위 간 갈등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1. 주요 보도내용(서울경제, '24.11.3.)

- “이번엔 ‘LTV 담합’ 갈등...금융위 ‘공정위, 협의 없어’”, “공정위 ‘은행들 10%p 일괄 낮춰’ vs 금융위 ‘LTV 원래 다 비슷’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(LTV)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,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<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입장 >

-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부처 간에 협의를 필요 없는 사안으로서, 공정위와 금융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담당부서	공정거래위원회	카르텔조사국	책임자	과장	전영재 (044-200-4566)
		국제카르텔조사과	담당자	조사관	이지영 (044-200-4569)
	금융위원회	금융산업국 은행과	책임자	과장	이진수 (02-2100-2950)
			담당자	사무관	김경호 (02-2100-2953)